

바야흐로 서핑의 계절

글. 배준경 SBS 편집기술팀 매니저



실제로 서핑은 여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핑은 사계절 스포츠이다. 서핑 장비의 발전 및 서핑 문화의 확산으로 점점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서핑을 시작한다면 단연코 여름이다. 바다로 떠나고 싶은 순간, 바야흐로 서핑의 계절이다.

서핑의 역사와 문화

서핑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수천 년 전 고대 폴리네시아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다. 서핑, 즉 파도를 타는 모습은 1767년에 유럽 선원이 타히티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보드를 탔었고, 서핑 실력이 부족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역할도 하였다. 특히 하와이에서는 대다수가 서핑했으며,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이었다.



와이키키 쿠히오 비치에 있는 듀크 카하나모쿠 동상

서핑이 현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20년대 하와이 출신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듀크 카하나모쿠(Duke Kahanamoku)에 의해서다. 현대 서핑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는 하와이 와이키키에서 처음으로 서핑 클럽을 열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서핑이 스포츠 종목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결국, 1974년에 국제서핑협회가 창설되었고, 서핑은 미국과 호주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에서 첫 서핑 클럽이 탄생한 뒤로, 여러 동호회가 결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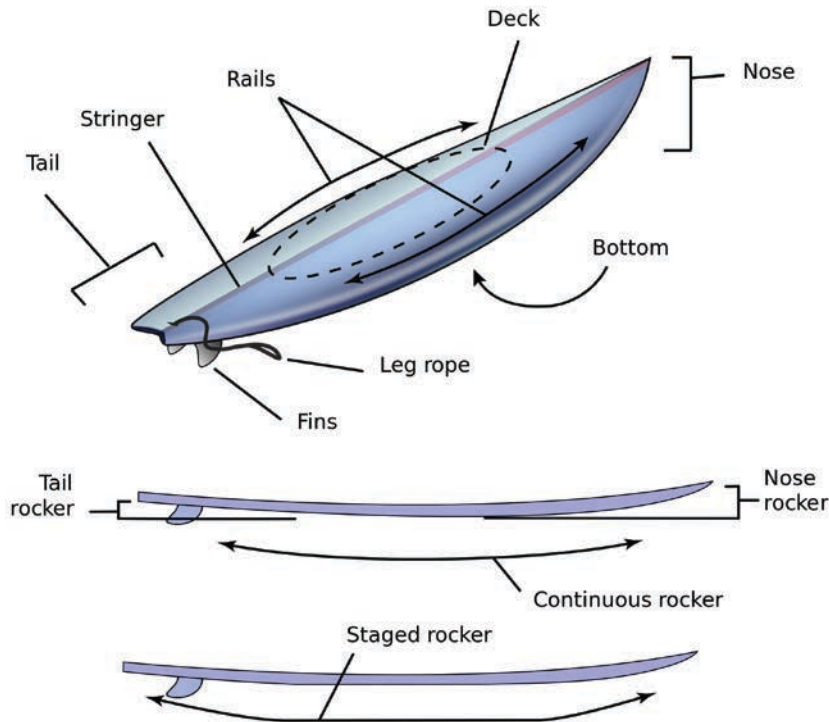
- 1 영화 Gidget 포스터
- 2 Surfer Girl 앨범 표지 by The Beach Boys
- 3 영화 소울 서퍼
- 4 애니메이션 서핑업

서핑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각종 대중 매체에서 서핑을 다루었다. 특히 1960년대 들어서고, 영화와 음악에서 서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었다. 소위 B급 영화들과 서핑 음악이 서핑과 서퍼들에 대한 이미지를 점차 형성해갔다. 이러한 관심은 21세기에도 이어져서 서퍼를 주인공으로 한 실사 영화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나오게 된다.

해당 영화나 음악에 관하여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 필자 역시도 1960년대 미디어에 대해서는 서핑을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서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다면 비교적 최근 나온 영화들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서핑 업(SURF'S UP) 애니메이션은 2편까지 나왔다! 물론 미디어는 서핑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며 봐야 한다.

서핑 장비

본격적으로 서핑을 시작하려면 서핑 장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서핑 장비는 보드, 리시(Leash), 슈트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서핑보드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덱(Deck)은 보드의 앞면이다. 그리고 바텀(Bottom)은 보드의 뒷면이다.

노즈(Nose)는 보드의 앞쪽 끝부분으로 폭이 넓을수록 부력이 증가하여 라이딩 시, 보드가 안정적이다.

테일(Tail)은 보드의 하단부로 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스트링거(Stringer)는 보드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보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들어있다. 보통 1개가 들어가 있으며, 그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레일(Rail)은 보드의 측면부로 턴을 할 때, 보드 제어 및 부력에 영향을 준다.

핀(Fin)은 보드의 테일 부분에 붙어있어서 키잡이 역할을 한다. 핀의 디자인 및 개수에 따라 라이딩 느낌이 달라진다.

로커(Rocker)는 보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휘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로커가 높으면 라이딩 속도가 떨어지지만 유연성이 높다.

레그 로프(Leg rope)는 일명 리시(Leash)라고 한다. 테일 쪽에 달려서 서퍼와 서핑보드를 연결하는 줄이다. 길이는 5피트부터 11피트까지 다양하며, 서핑보드가 바닷가에 떠다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준다. 발목에 차는 것이 일반적이며 종아리에 찰 수도 있다.



리시(Leash)를 착용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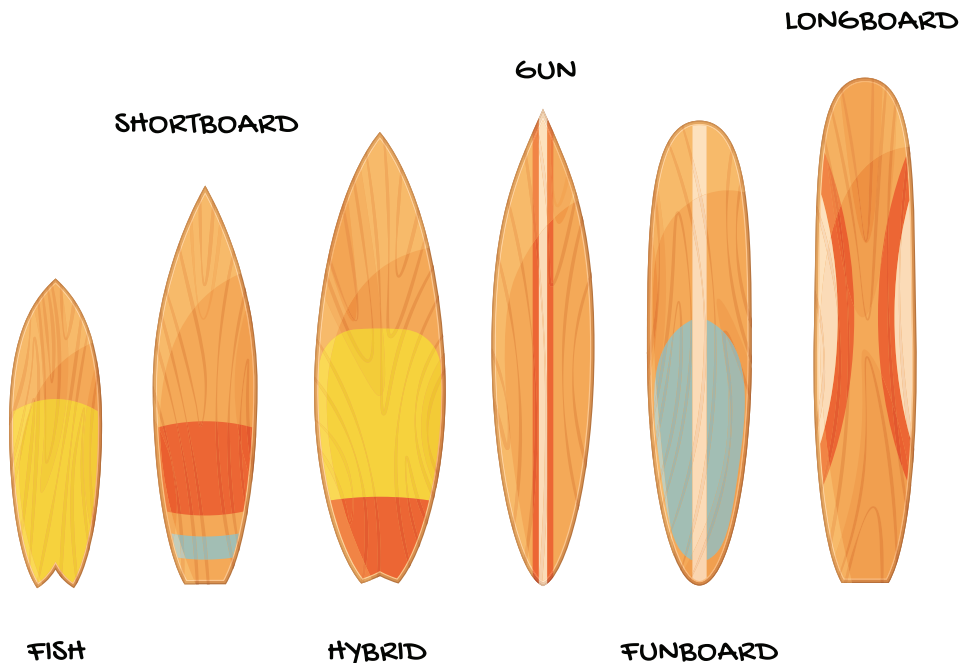
서핑보드는 재질이나 길이 및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재질로 분류하자면, 일반적으로 PU(폴리우레탄 폼) 보드와 EPS(발포 폴리스티렌 폼, 스티로폼) 보드로 나뉜다.

PU 보드는 전통적인 형태로 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폴리우레탄 폼에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수지(Resin)와 파이버 글라스(Fiber glass) 직물을 사용해서 제작된다. EPS 보드에 비해 유연성이 높고, 부력이 낮아 다양한 파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EPS 보드는 스티로폼에 에폭시(Epoxy) 수지와 파이버 글라스 직물을 사용해서 제작된다. PU 보드에 비해 밀도가 낮아 가볍고 부력이 크고, 외부 충격에 강하다. 대신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져 다양한 파도에서 타기는 힘들다. 보통 서핑을 처음 배울 시, 부력이 높은 스티로폼에 부드러운 소재가 감싸진 소프트탑 보드로 시작하게 된다.

길이 및 모양으로 분류하면,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는 더 다양한 종류가 있다.

① **롱보드:** 8피트(약 2.4m) 이상의 보드로 부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패들링에 유리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져 턴이나 고급 기술을 하기에는 어렵다. 보통 초보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보드이다. 물론 롱보드를 탄다고 초보자는 아니다. 게다가 보드의 제작기술과 소재의 발달로 인하여 롱보드로도 공격적인 서핑, 즉 매뉴버(Maneuver)가 가능하다.



② **숏보드:** 7피트(약 2.1m) 이하의 보드로 상대적으로 가볍기에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용이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프로 서퍼들이 탄다. 하지만 부력이 낮기 때문에 균형을 잡거나 패들링을 하는 것이 어렵고, 라이딩 속도가 떨어져 작은 파도에서 타기 힘들다.

③ **피쉬보드:** 5피트에서 6피트대의 보드로 스왈로우(Swallow) 테일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숏보드에 비해서 매우 넓고 두꺼워 부력이 높다. 스왈로우 테일과 작은 로커, 핀 셋업으로 물과의 저항은 약하다. 롱보드와 숏보드의 여러 면을 조합한 보드로 패들링이 쉬우며, 작은 파도에서 가장 적합하다.

④ **건보드:** 빅 웨이브 전용으로 제작한 보드로 일반적인 보드에 비해 크고 두꺼우며, 롱보드에 비해 노즈가 뾰족하다. 빅 웨이브 서핑이 매우 위험한 만큼, 파도마다 특화 제작된다.

⑤ **편보드:** 6피트에서 8피트대의 보드로 보통 둥글고, 너비가 좁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롱보드에서 숏보드로 갈 때 거쳐 가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며, 다양한 형태 및 핀 셋업을 가진다. 초보자가 입문 시, 롱보드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서핑 슈트는 차가운 바닷물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자외선 차단 및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다. 서핑 슈트는 웨트슈트(Wet suit)라고 하여 슈트와 피부 사이에 들어온 물로 체온을 유지해 준다. 보통 두께에 따라서 4~5mm, 3mm, 2mm 이하로 나뉜다. 수온이 높을수록 가볍게 래시가드, 재킷, 스프링 슈트(2mm) 정도를 입는다. 이 경우는 자외선 차단이 주목적이고, 약간의 피부 보호 및 체온 유지가 가능하다. 보통은 풀 슈트(Full Suit)를 착용한다. 특히 한국에서만 서핑할 경우에는 여름(6월~8월)을 제외하고는 풀 슈트를 착용해야 한다. 봄, 가을에는 3mm를 착용하는 편이고, 겨울은 4~5mm를 착용한다.



수온 및 두께에 따른 여러 종류의 풀슈트

이러한 서핑 장비들은 초보자의 경우 강습을 받으며 사용해보게 되고, 따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서핑 샵에서 계속 대여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력을 더 키우고 싶다면 본인의 몸무게 및 키, 서핑 실력 등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핑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서핑의 기본 단계



① 패들링

② 테이크 오프

③ 라이딩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다면 ① **패들링(Paddling)**이다. 패들링이란 보드에 엮드려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 양팔을 이용해 물을 젓는 행동이다.

패들링을 하기 위한 동작을 구분해 보자면, (1) 스트링거를 기준으로 몸의 중심위치를 맞춰서 보드에 올라간다. (2) 정면을 응시하고, 상체는 가급적 많이 일으킨다. (3)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며, 패들링을 한다. 이렇게 패들링을 해서 라인업까지 나아가는데, 이를 패들아웃이라고 한다. 라인업(Line-up)은 파도가 일차적으로 부서지는 위치로서, 서퍼들이 파도를 기다리는 곳이다.

② **테이크 오프(Take off)**는 패들링으로 보드를 가속하여, 파도를 타고 보드 위에 일어서는 동작이다. 다른 말로 팝업(Pop up)이라고도 한다.

테이크 오프 시, 팔꿈치는 직각을 유지하고, 양손에 힘을 주어 보드를 안정시키면서 강하고 빠르게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초보자들이 이 테이크 오프 타이밍을 잡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 타이밍이 어긋날 경우 보드의 노즈부터 수면으로 들어가는 노즈 다이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숙련된 서퍼도 매년 성공하지 않는 만큼, 많은 경험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③ **라이딩**은 테이크 오프를 하고 난 후, 보드 위에 서서 원하는 방향으로 파도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다. 라이딩 자세는 2가지가 있다. 왼발을 앞에, 오른발을 뒤에 두고 타는 자세를 레귤러라고 하며 보통 오른손잡이일 경우, 이 방식으로 한다. 반대의 경우는 구피라고 한다.

라이딩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직선과 사선(사이드) 라이딩이다. 직선 라이딩은 말 그대로 파도를 직선으로 타는 것이며, 부서지는 파도를 타는 것이다. 사이드 라이딩은 부서지지 않은 파도를 사선으로 타는 것이다. 초보자는 직선 라이딩에서부터 시작하며, 실력이 늘면 사이드 라이딩을 배우는 식으로 한다.

패들링과 테이크 오프는 서핑에 있어서 반드시 익혀야 할 기술이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기술이 서핑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패들링으로 바다의 라인업으로 가고, 테이크오프 하는 순간까지 패들링을 하고 테이크오프에 성공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숙해지고, 능숙해질 때까지 직접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서핑 에티켓



서핑에는 ‘One man one wave, 한 파도에는 한 사람만 라이딩한다’라는 전 세계적인 규칙이 있다. 한 개의 파도에 많은 서퍼가 동시에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파도의 높이가 가장 높은 부분(피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사람이 그 파도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우선권을 가진 서퍼의 우선권을 침범하지 않고,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에티켓이다.

마무리하며

서핑에 대한 글을 보며 한번 서핑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국내에서는 제주 중문 해수욕장, 부산 송정 해수욕장, 강원 양양 죽도 해수욕장을 추천한다. 아무래도 이 세 곳이 가장 널리 알려진 지역이라 다양한 서핑 샵이 있어서, 보드 및 슈트 렌탈과 서핑 강습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동해안이라 파도의 경사가 완만해 입문자가 배우기 좋은 강원도 양양의 죽도 해수욕장을 가장 추천한다.

시간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도전해보자! 서핑을 하기로 한 날짜가 정해졌다면, 미리 파도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서핑하게 되면 항상 서퍼 간 서핑 에티켓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안전에 주의하자. 그렇게 서핑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바다를 응시하며, 다가올 파도에 몸을 맡기려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7월 초에 필자가 갔다 온 강원도 양양의 죽도 해수욕장

출처

www.surfingforlife.com/history.html
www.surfscience.com/topics/learn-to-surf
www.surfinghandbook.com/best-surfboard-leashes
earnsurfschool.com/rnli-surf-etiquette

yesisurf.com/
www.patagonia.co.kr/shop
blog.ajucaital.co.kr/1043
en.wikipedia.org/wiki/Surfboard